

3년 만에 돌아온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30일 개막

등록 2022.09.19 08:50:11

기사내용 요약

2010년 첫 '프로스트(prost)'...10월2일까지 3일간
1400대 규모 주차장 확보 등 교통혼잡문제 해결



[남해=뉴스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의 대표축제인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된다.

남해군은 제10회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오는 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 삼동면 독일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남해에서 만나는 독일, 맥주로 하나 되는 남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맥주축제는 2010년 독일마을의 주민 주도로 시작돼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의 남해군 대표축제로 성장했으며, 독일마을을 알리는 장소 브랜딩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주민참여형 축제'를 지향하며 독일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독일마을 상가, 이웃 마을의 주민들도 축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등 상생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3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 자리에서는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주민과 축제 관람객의 관점에서 시대에 맞는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ESG실천 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셔틀버스 운행·화암주차장 정비 등 1400대 규모 주차장 확보

교통혼잡문제는 남해독일마을 맥주축제의 가장 큰 문제였다. 보고회 자리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한 지점이기도 했다.

이에 대비해 남해군은 행사장 주변 지역인 독일마을 입구에서부터 화암교 삼거리까지는 차량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사장 가장 큰 규모 주차장인 화암주차장을 정비했다. 기존 수용 500대였던 주차 공간을 미포장 구역까지 더 정비해 총 8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또한 독일마을 인근의 가용공간을 더 포함해 총 146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더불어 주차장과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더불어 창선·삼천포대교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남해대교와 노량대교를 통해 독일마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맑은 듯 다르게' 주민 참여 중심 ESG 환경실천축제

남해 대표 축제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이웃 주민과의 상생과 협력을 중심에 두고 '맥주축제추진단'을 구성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이 축제를 준비해오고 있다.

기존 도이처플라츠 광장 중심으로 이뤄지던 축제의 공간적 외연을 넓혀 독일마을 상가거리로까지 확대해 유럽문화거리로 조성, 체험 및 즐길 거리가 이어지도록 한다.

또 이웃 봉화마을, 물건마을 등 다수 마을주민이 참여해 남해특색이 담긴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선택지를 넓힐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필(必)환경에 대한 실천 의지가 높은 데 따라 버려지기 쉬운 리플렛과 포스터 인쇄는 지양하고 대신 축제의 정보가 담긴 QR코드 모바일 안내 배너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줄이면서 축제를 즐기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어 입점하는 부스도 최대한 플라스틱사용은 자제하면서 다회용 그릇과 친환경 소재 용기를 적극 사용토록 권장한다.

◆오크통 마차와 함께 돌아온 독일마을 맥주축제의 '즐거운 시작 prost!'

형형색색의 꽃장식과 오크통 마차 등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는 퍼레이드가 막을 연다. 개막식 퍼레이드는 독일마을 상가마을부터 시작해 오크통 마차와 함께 광장 주무대까지 펼쳐진다.

이어 무대에서는 오크통 개봉 퍼포먼스가 열린다. 다같이 '프로스트(prost)'라는 건배를 외치며 함께 맥주잔을 부딪치는 것은 것으로 즐거운 축제의 본격개막을 선언한다.

또한 독일식 건축물 가벽형식의 무대와 함께 독일 국기와 가랜더, 밝은 조명 등이 일순간 독일 옥토버페스트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무대와 관람석 이외에 '아일랜드 형식의 맥주 펌 부스'를 별도로 제작해 축제 공간의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오크통을 이용한 '스탠딩 테이블'과 생동감 있는 장식은 축제장 어디에 카메라를 대더라도 다양한 포토 스팟이 되어 줄 것이다.

이 밖에도 체험존 구역을 별도로 마련해 맥주빨리마시기, 맥주잔 높이 쌓기 등의 게임과 마술공연, 비눗방울 등 참여형 무대 프로그램이 이뤄지며, 전통의상 대여 및 기념품 판매 등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전문가 포럼 및 숙박대전 등 새로운 시도로 '머무는 축제'로

10월1일 오후 2시부터 독일마을 인근 '엘림 마리나 리조트 콘서트홀'에서 특별한 전문가 포럼이 열린다. 독일마을의 지속가능성이란 주제 포럼을 개최, 지역과 미래를 함께 논의코자 한다.

더불어 2일 오전 10시부터 낮 1시까지는 독일마을 광장 주무대에서 화려한 칵테일 경연대회가 열린다. 이는 지역 내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남도립남해대학과의 연계 행사로서 색다른 볼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 체류형 관광을 위한 '남해형 숙박대전 프로모션'을 '마이리얼트립'과 연계해 지난 16일부터 진행 중으로, 1박 이상 체류하는 방문객에게 최대 43% 할인되는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축제를 주관하는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통

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모두가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자 다방면으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해왔다"며 "꽃섬 남해에서 만나는 독일, 맥주로 하나 되는 즐거운 일상으로의 회복인 축제장이 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